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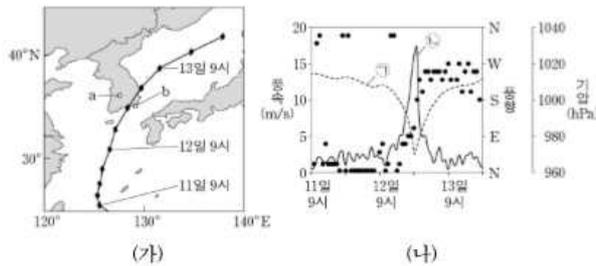
2019학년도

북한산 화강암은 ( )에 (용암/마그마)이(가) ( )에서 (빨리/천천히) 굳 으면서 생성되었으며 (판상절리/주상절리)가 발달했고, 제주도 현무암은 ( )에 (용암 /마그마)이(가) ( )에서 (빨리/천천히) 굳으면서 생성되어 (판상절리/주상절리)가 발 달했다.

규암은 ( )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된 ( )이다.

절리는 ( )이므로 일반적인 암석에 생성될 수 (있다/없다)

11. 그림 (가)는 어느 태풍의 위치를 6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, (나)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a와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풍향, 풍속, 기압 자료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. ㉠과 ㉡은 각각 풍속과 기압 중 하나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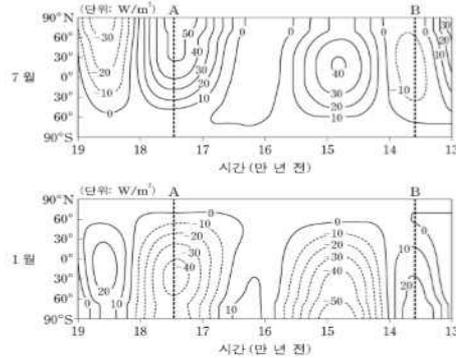
9시~21시동안 태풍의 이동 속도는 (11일/12일/13일)이 더 빠르다.

(나)의 풍향 변화는 (시계 방향/반시계 방향)이므로 (a/b)에서 관측한 것이다.

(나)에서 12일에 측정된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( )이다.

풍속이 가장 빠른 순간은 ( )이며 기압 변화와 관련성은 ( )

12. 그림은 밀란코비치 주기를 이용하여,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 (과거 추정값 - 현재 평균값)를 나타낸 것이다. 그림에서 북반구는 7월에 여름이고, 1월에 겨울이다.



7월에 30S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( ) 시기가 현재보다 더 많다.

1월에 30N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( ) 시기가 현재보다 더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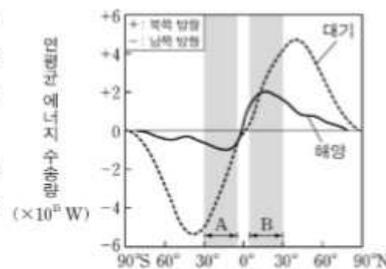
연교차는 ( ) 시기가 ( ) 시기보다 더 크다.

북반구에서 연교차가 클 때 자전축의 경사는 (더 크고/더 작고) 이심률은 (더 크다/더 작다)

13. 그림은 대기와 해양에서

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 
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 
나타낸 것이다.

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
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 
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는 38S가 0도보다 (크다/작다)

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과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의 비는 (A/B)가 (A/B)보다 크다.

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( )를 일으킨다.

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을 때 ( )와 ( )는 평형이다.

14.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의 경계와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.



A는 (해령/해구)이고 B는 (해령/해구)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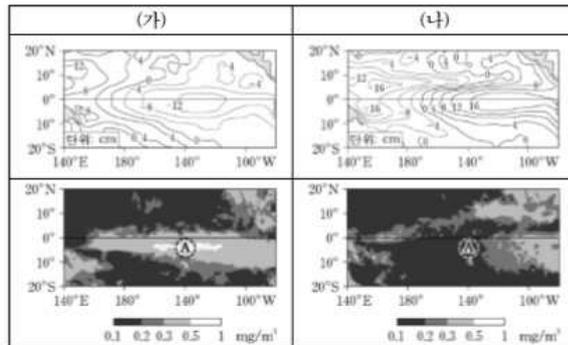
해양 지각의 나이는 (A/B) 지역이 (A/B) 지역보다 많다.

화산 활동은 (A/B/C) 지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.

판의 경계 (ㄱ)을 따라 (수렴형/발산형) 경계가 발달한다.

A 지역에서는 ( ) 마그마가, C 지역에서는 ( ) 마그마가 잘 생성된다.

19. 표의 (가)와 (나)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 높이 편차 (관측값 - 평년값)와 엽록소 a 농도 분포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로 구분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.



(엘니뇨/라니냐)일 때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더 높아지고, (엘니뇨/라니냐)일 때 태평양 적도 해역의 동서 간 높이 편차는 더 커진다.

무역풍의 세기는 ( ) 시기가 더 강하므로 ( ) 시기가 (엘니뇨/라니냐)이다.

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( ) 시기에 더 두껍다.

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(엘니뇨/라니냐) 시기에 더 높다.